

www.eai.or.kr

미국-이란 전쟁 특별 논평 시리즈 ②

2026년 이란 전쟁 이후 중동 질서: 구조적 불안정성과 안보전략의 전환

김강석 (한국외국어대)

안소연 (한국외국어대)

2026년 이란 전쟁 이후 중동 질서: 구조적 불안정성과 안보전략의 전환

김강석*, 안소연**

*한국외국어대 교수

**한국외국어대 강사



서론: 2026년 이란 전쟁 이후 중동 질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2026년 2월 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은 미국과 이란 간 합의를 통해 일단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 세계질서의 변화를 예고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전쟁은 중동 역내 질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쟁을 통해 걸프 국가들이 오랫동안 의존해 온 미국의 안보 우산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었으며, GCC(걸프협력회의) 국가들 간 이해관계의 차이와 전략적 불협화음도 드러났다. 이러한 변화는 중동 역내 질서가 재편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중동 국가들은 이번 전쟁을 통해 미국 중심 안보체제의 한계를 확인하는 한편, 자국의 군사적 역지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안보전략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중동 질서는 미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안보 파트너를 다변화하고 자구적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고는 2026년 이란 전쟁을 계기로 나타난 중동 질서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 중심에 있는 이란, 이스라엘, 그리고 걸프 아랍 국가들의 안보전략과 역내 질서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1. 2026년 이란 전쟁이 드러낸 걸프 안보의 불안정성

2026년 이란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었음에도 전쟁에 크게 연루된 국가들은 이란과 걸프 만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아랍

결프 왕정들이었다. 1990 년 제 1 차 걸프전쟁 이후 GCC 국가들은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역내 안보 위협에 대비한다는 전략적 노선 아래 자국 영토에 미군 기지를 유치하였다. 걸프 지역의 미군 기지는 동지중해에서 남아시아에 이르는 미군 작전의 핵심 거점이자 역내 억지력의 상징으로 기능해 왔다(Alexander 2026). 하지만, 이러한 안보협력은 역설적으로 걸프 국가들을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으며, 미국이 중동 분쟁에 개입할 때마다 걸프 국가들 역시 분쟁에 연루되기 쉬운 구조적 한계를 창출하였다.

이러한 동맹 딜레마는 2025 년 12 일 전쟁 기간 이란이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한 보복으로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를 공격한 사건에서 이미 드러났다. 당시 이란의 사전 통보로 대규모 피해는 피했지만, 이 사건은 미군 기지가 걸프 국가들의 안보 자산인 동시에 보복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걸프 국가들의 안보 취약성은 2026 년 전쟁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되자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등에 위치한 미군 기지는 이란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었으며, 공항과 정유시설 등 핵심 인프라까지 공격 범위가 확대되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걸프 국가 가운데 가장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 약 2,000 기의 드론과 500 여 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았으며, 이는 걸프 지역 전체를 향한 이란의 공격 가운데 약 55%에 해당하는 수치였다(Nikaeen 2026). 결과적으로 걸프 국가들은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었음에도 미국과의 동맹으로 인해 전쟁의 최전선에 노출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번 전쟁은 기존 안보협력 체제가 지닌 구조적 불안정성과 함께 새로운 안보전략 모색의 필요성을 드러낸 계기가 되었다.

2. 걸프 내부의 균열과 역내 질서의 변화

이번 전쟁에서 전장의 중심으로 전락한 걸프 국가들을 중심으로 역내 질서의 변화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주목할 점은 걸프 지역 내부의 분열 가능성이다. 이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간 긴장 고조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양국은 걸프 지역의 주요 행위자로서 협력과 경쟁을 반복해 왔으며, 2026 년 전쟁 이전에도 예멘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보여 왔다. 특히 아랍에미리트가 예멘 남부과도위원회(STC)를 후원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입장 차이가 부각되었다. 이는 아랍에미리트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기존 걸프 질서에 도전해 왔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번 전쟁 국면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현저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먼저 사우디아라비아는 군사적 수단만으로는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Krasna 2026).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 및 이란 연계 세력의 공격을 군사적 압박보다 외교적 타협을 통해 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과 중동 국가들 간 상호 불가침 조약 체결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다(Middle East Eye 2026). 이는 이란 체제 자체를 변화시키기 어렵다면, 국경 불가침과 상호 안보 보장을 통해 역내 불안정을 관리하려는 접근으로 분석할 수 있다.

반면 아랍에미리트는 필요할 경우 군사적 압박과 무력 사용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Leber 2026). 이는 외교적 타협을 우선시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상이한 접근으로 평가된다. 아랍에미리트는 2020 년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한 이후 안보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이번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산 아이언돔(Iron Dome) 요격체계를 이란의 미사일 격추에 사용하는 등 이스라엘과 군사 협력을 유지했다(The New Arab 2026). 특히, 2026 년 5 월에는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한 미국의 군사작전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행보는 이란의 보복 가능성을 우려하여 미국에 군사작전의 자제를 요청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의 입장과 대조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쟁 기간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간 입장 차이가 발현되는 가운데, 아랍에미리트는 OPEC+ 탈퇴를 선언하였다. 특히 이 발표가 사우디아라비아의 GCC 긴급회의 주최 진행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아랍에미리트는 OPEC 회원국 가운데 주요 산유국 중 하나로, 러시아의 OPEC+ 참여 이후 지속된 생산량 상한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Connelly 2026). 원유 생산 능력을 꾸준히 확대해 왔음에도 생산 제한으로 인해 자국의 수익 극대화에 제약을 받아왔기 때문이다(Schneider 2026).

이러한 맥락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에너지 시장의 혼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아랍에미리트의 OPEC+ 탈퇴는 자국의 상황에 맞는 보다 유연하고 독자적인 생산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평가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OPEC+에 불만을 표출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랍에미리트가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려는 신호로도 간주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전쟁은 GCC 내부의 전략적 균열을 더욱 강화했다고 볼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대이란 전략과 역내 질서를 두고 상이한 접근을 보였으며, 이는 향후 GCC 가 공동의 안보 이해관계에 토대한 단일 행위자로 기능하기보다, 회원국들 내부의 위협 인식에 따라 독자적인 안보전략을 추구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3. 동맹의 재편과 안보협력의 다변화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출범 직후인 2025년 5월 첫 해외 순방지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선택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브라함 협정 동참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어 2026년 5월 이란 전쟁이 휴전 국면에 접어들자 다시 아브라함 협정을 전후 중동 질서 재편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2026년 5월 23일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비롯해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파키스탄 등 중동 및 이슬람권 8개국 정상들과 연쇄 전화 협의를 갖고, 이란과의 종전 및 평화협상과 연계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의 아브라함 협정 참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진다(Toosi 2026). 이러한 트럼프의 노선은 걸프 국가들을 이스라엘과 하나의 안보 축으로 연결하여 전후 중동 질서를 미국과 이스라엘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하려는 구상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는 이에 대해 응답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전쟁 국면에서 반 이스라엘 정서가 고조된 상황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향한 구체적 경로가 제시되지 않는 한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두 성지의 수호자”로서 이슬람의 종주국을 자처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장에서 국제사회의 여론을 외면한 채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권 국가들과 대안적 안보 연대를 추구하고 있다. 최근 이집트, 튀르키예, 파키스탄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이란 전쟁 국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안보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했다(Alhasan 2026). 2025년에는 파키스탄과 전략적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특히 파키스탄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배치한 JF-17 전투기와 방공미사일이 중국과의 합작 또는 중국산 첨단 무기체계라는 측면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 간 군사협력이 우회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준다(Choi 2026). 반면 아랍에미리트는 미국-이스라엘-아랍에미리트 삼각 협력에 기초하여 I2U2와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 협정 네트워크를 활용해 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이스라엘은 최근 미국과 기존의 10년 단위 군사원조 양해각서를 대체할 보다 포괄적인 안보협정 체결을 추진하려 한다(Arnaout 2026). 이는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존하는 기존 틀을 뛰어넘어 군사협력을 제도적으로 통합하는 새로운 안보체제를 모색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2025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방미를 계기로 미국과 전략방위협정을 체결하였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F-35 전투기를 포함한 대규모 방산 패키지를 승인하며 이스라엘에 버금가는 수준의 군사 지원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제공할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그러나 2026 년 이란 전쟁은 미국의 안보 공약이 동맹국 간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쉽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걸프 국가들과 이스라엘은 모두 미국의 안보 우산에 의존하는 핵심 동맹국들이지만, 전쟁 기간 미국은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 군사작전에 직접 참여하며 대규모 무기 지원을 제공한 반면, 걸프 국가들에는 방어적 요격 지원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차별적 대응은 걸프 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이스라엘과 동등한 수준의 안보 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유발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외에도 이번 전쟁은 이란의 고도화된 미사일과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중부사령부(CENTCOM) 체계 아래 구축된 통합 미사일 방어망에 대한 의존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고조시켰다. 따라서 걸프 국가들과 이스라엘은 미국 중심 안보체제의 유지·강화를 여전히 중시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역외 행위자들과의 안보협력을 확대하는 이중 전략을 옹호할 것으로 평가된다. 다시 말해서, 전후 중동 국가들의 안보전략은 미국을 중요한 안보협력의 축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안보 파트너의 대상을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4. 결론 및 한국에의 함의

이란 전쟁 이후 걸프 안보 질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집단안보 체제로 수렴하기보다 자구적 안보 역량 강화와 안보협력의 다변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쟁은 미국의 안보 공약이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자산임을 확인시키는 동시에 미국 중심 안보 동맹체제가 갖는 한계점도 함께 드러냈다(Azad 2026). 따라서 전후 걸프 국가들은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지속하면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안보 공급원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중시하게 될 것이다. 현 단계에서 중국이 미국의 대체자가 되기는 어렵지만, 에너지·기술·인프라·금융 등을 포괄하는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걸프 국가들의 전략적 선택지를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 러시아, 유럽, 인도, 일본, 튀르키예, 한국 등 여러 국가들이 방산·첨단기술·공급망 협력의 주요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후 걸프 국가들의 안보 전략은 미국 의존성을 완화하는 방향 속에서 추진될 것이다. 이는 진영 질서에서 벗어나 기능별·이슈별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네트워크 기반 세계질서(networked world order)”가 중동에서 더욱 중요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Baharoon 2022).

전후 중동 질서의 또 다른 변화는 걸프 지역의 불안정성이 구조적으로 심화되었다는 사실이다. GCC 국가들은 그동안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에 토대하여 투자가 집중되는 ‘안전지대(safe haven)’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전쟁은 걸프 역시 분쟁의 전선으로 번지는

전략적 공간이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이란의 억지 전략 전환과 맞물려 나타났다. 과거 이란은 '전략적 고독(strategic loneliness)' 속에서 '저항의 축(Axis of Resistance)'에 기반한 '전방위 방어(forward defense)' 전략을 추구해 왔다고 평가된다(Reisinezhad 2026). 그러나 이번 전쟁을 계기로 보다 공세적 군사 전략으로 전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과 역내 전략 인프라를 압박 대상으로 삼아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개입 비용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이는 걸프 지역의 상시적 안보 불안정성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Azizi 2026).

전후 중동 질서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에너지 수송로를 넘어 국제 해양질서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다(International Crisis Group 2026). 과거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이란에 과도한 비용을 초래하는 비현실적 선택지로 간주되었으나, 이번 전쟁 기간 제한적 봉쇄 및 항행 통제만으로 국제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실질적 압박 기제로 등장했다. 이에 따라 봉쇄 자체는 물론 봉쇄 가능성도 새로운 전략적 수단으로 작용하게 되었으며, 이란은 통행료 부과 등 다양한 레버리지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 압박 수단 이상의 전략적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한다(International Crisis Group 2026).

이러한 전후 중동 역내 안보질서의 변화 가능성은 에너지 및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동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호르무즈 해협의 구조적 불안정성이 재확인된 만큼 원유 및 LNG 도입선 다변화, 전략 비축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공급망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걸프 국가들이 네트워크 기반 세계질서 속에서 특정 강대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안보 공급원을 다변화하는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함에 따라 한국은 이를 새로운 협력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원외교를 넘어 방산, 첨단 인프라, 소버린 AI, 데이터센터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기능적·중견국 협력 파트너십을 확대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중동 외교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걸프 국가들의 안보협력 다변화 과정에서 실리적 이익을 확대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 노선을 지향해야 한다. ■

참고문헌

- Alexander, K. (2026, June 1). U.S. bases in the GCC: A security model under attack. *Afkār*. Middle East Council on Global Affairs. https://mecouncil.org/blog_posts/u-s-bases-in-the-gcc-a-security-model-under-attack/
- Alhasan, H. (2026, May 6). A new Middle Eastern quadrilateral is taking shap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https://www.iiss.org/online-analysis/online-analysis/2026/05/a-new-middle-eastern-quadrilateral-is-taking-shape/>
- Arnaout, A. R. D. A. R. (2026, June 5). Israel, US launch talks to draft new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 Anadolu Agency. <https://www.aa.com.tr/en/americas/israel-us-launch-talks-to-draft-new-security-cooperation-framework/3957577>
- Azad, T. (2026, June 15). *The new Middle East: Power, perception, and order after the Iran war*. Small Wars Journal. <https://smallwarsjournal.com/2026/06/15/the-new-middle-east-after-the-iran-war/>
- Azizi, Hamidreza. (2026, Mar 25). How Iran Rewrote Its War Strategy. *Iran Analytica*. <https://www.irananalytica.org/p/how-iran-rewrote-its-war-strategy>
- Baharoon, M. (2022, April 5). *The keys to reading the UAE's strategic map*. Middle East Institute.
- Choi, S. H. (2026). Will Pakistan's new defence pact with Saudi Arabia give Chinese arms risk-free exposure? *South China Morning Post*. <https://www.scmp.com/news/china/military/article/3352474/will-pakistans-new-defence-pact-saudi-arabia-give-chinese-arms-risk-free-exposure>
- International Crisis Group. (2026, May 29). *The state of the strait: The role of Hormuz in the Middle East war so far*. <https://www.crisisgroup.org/visual-explainers/hormuz/>
- Krasna, J. (2026, June 4). The United Arab Emirates: Tension with Saudi Arabia, going its own way, and doubling down on existing alliances in the wake of Iran's attacks. *Tel Aviv Notes*. The Moshe Dayan Center for Middle Eastern and African Studies. <https://dayan.org/content/united-arab-emirates-tension-saudi-arabia-going-its-own-way-and-doubling-down-existing>

- Leber, A. (2026, June 5). Can the UAE go it alone? A risky quest for strategic autonomy in a war-torn Middle East. *Foreign Affairs*. <https://www.foreignaffairs.com/united-arab-emirates/can-uae-go-it-alone>
- Middle East Eye. (2026, May 14). Saudi Arabia floats non-aggression pact with Iran and regional states: Report. <https://www.middleeasteye.net/news/saudi-arabia-floats-non-aggression-pact-iran-and-regional-states-report>
- Muasher, M. (2026, May 21). Is the UAE leaving OPE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https://mei.edu/publication/what-does-the-uaes-departure-mean-for-opec/>
- Nikaeen, E. (2026, June 2). From partnership to pressure: Why the UAE's approach to Iran is changing. *Manara Magazine*. <https://manaramagazine.org/2026/06/the-uaes-approach-to-iran-is-changing/>
- Reisinezhad, A. (2026, Feb 16). The rise and decline of Iran's Forward Defense Strategy. <https://www.tandfonline.com/doi/abs/10.1080/13530194.2026.2627252>
- Schneider, F. (2026, May 5). The UAE's OPEC exit leaves the Gulf further adrift. *Afkār*. Middle East Council on Global Affairs. <https://mecouncil.org/publication/the-uaes-opec-exit-leaves-the-gulf-further-adrift/>
- The New Arab. (2026, May 12). Huckabee says Israel sent Iron Dome, personnel to UAE amid Iran war. <https://www.newarab.com/news/huckabee-says-israel-sent-iron-dome-personnel-uae-amid-iran-war>
- Toosi, N. (2026, May 26). Join the Abraham Accords? US allies scoff at Trump's demand. *Politico*. <https://www.politico.com/news/2026/05/26/trump-muslim-majority-nations-abraham-accords-00936785>

■ 김강석_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안소연_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 담당 및 편집: 이상준_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11) leesj@eai.or.kr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발행일 2026년 7월 1일
"2026년 이란 전쟁 이후 중동 질서: 구조적 불안정성과 안보전략의 전환" 979-11-7584-115-4 95340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3028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7길 1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